

흙·불...그리고 사람 강진 청자축제 'ON'

내달 1일 개막...7일까지 온라인으로 노래자랑·콘서트·온비드 관요 경매 등 다채

강진군의 대표 축제인 강진청자축제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축제로 선보인다. 강진군은 유튜브 채널(강진군 튜브)과 축제 홈페이지 등에 축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대구면 청자촌 주 무대에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백운동 원림 등 강진 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힐링 콘서트 '강진투어 힐링 버스커'가 축제 기간 중 4회 진행된다.

읍·면 랜선 노래자랑은 5일 예선 무대를 거쳐 6일 11명의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며 대상부터 입선까지 총 300만원의 상금을 준다.

강진을 대표하는 1인과 일반인 49명의 강진에 대한 퀴즈 대결도 준비돼 있다.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강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1일부터 4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강진 명품정자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3일부터 6일까지는 오후 5시에 강진 특산물 쌀, 귀리, 파프리카 등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온비드를 통한 관요 경매도 축제 기간에 횡수를 늘려 2회에 걸쳐 30점 경매로 진행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청자축제는 온라인 매체를 폭넓게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 창출 행사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군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1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장흥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에서 조직 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 결과를 합산해 전국 농산어촌 총 82개 드림스타트 중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2011년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정서·신체·건강·가족 위기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왔다.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144가구 288명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면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81개소가 넘는 풍부한 민간자원 연계, 분기별 유관기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사례 회의 등 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는 아동친화 도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방비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에 대해 기관장의 사업 추진 의지가 뛰어나며, 취약가구 발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로 인한 물적·인적자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로컬푸드 누적 매출 '200억 눈앞'

신선한 먹거리·안전 검사 등 소비자 신뢰 얻어...개장 4년 회원만 1만2000여명

나주시가 농업인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나주로컬푸드 직매장이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주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9년 7월 누적매출 1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현재 200억원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간 빛가람·금남점 직매장 2곳에서 진행된 로컬푸드 선물 특판전이 대성황을 이뤘다.

해당 기간 동안 직매장 2곳 매출은 일평균 30% 가량 증가한 약 3억7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애용하는 빛가람점은 특판전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하루에만 5000만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역대 최대의 일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일평균 1200만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빛가람점은 2015년 개장 당시와 비교하면 3배 가량 성장한 가운데 탄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먹거리 신뢰에 기반 한 소비자 회원 등록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장 이후 4년 반이 지난 2020년 상반기에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9월 현재 1만1917명이 소비자 회원으로 등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 덕분에 나주로컬푸드 방문객 수도 또한 꾸준히 늘어난 추세이다.

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등록회원을 포함한 방문객은 일평균 633명에 누적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설 만큼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 비결은 공산품과 수입산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에서 재배한 생산자 실명제 농산물만 취급하면서 소비자와 쌓은 끈끈한 신뢰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선함이 생명인 농산물의 경우 업체류는 1일, 근채류 2일, 과채류는 3일 이상 진열하지 않을 만큼 유통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식탁 안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주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에 신뢰와 공감을 보내주는 시민들께 감사드리



나주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위)과 금남점.

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 발굴

K-바이오 등 130개 사업 보고회

화순군이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SOC 사업, 미래 성장 동력산업 등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지난 27일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K-바이오 분야 등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 지역균형 뉴딜, 기후 위기, 지역 생활밀착형 SOC 사업, 각종 공모 사업과 연계한 시책 발굴을 목표로 총 130개 사업이 보고됐다.

화순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K-바이오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노베이션 랩 구축 ▲팍타이드 기반 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제안됐다.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 분야는 ▲화순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해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량지 공원 조성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 힐링레저형 관광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벼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 사업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수산물품 클러스터 내 유통부서 꽃 단지 조성 사업 등이 검토됐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무연고 사회보장급여 대상 자격변동서비스 안내(문자톡)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동행 서비스 ▲화순군 재난상황 관리 스마트 드론 구축 등이 제안됐다.

동북댐 관련 신규 시책으로 ▲동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담 하류지역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세외수입 메타버스 사무실 운영 ▲주거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시스템 구축 운영 ▲화순군 차량등록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 등 체감도 높은 생활시책도 다수 발굴됐다.

구종근 화순군수는 "발굴한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효과로 나타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귀농닥터' 서비스

작목 선택·주택 정보 등 상담

담양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닥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귀농·귀촌 희망자나 농촌 거주 1년 미만(전입일 기준)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선배농업인, 선도농업인 등 전문가와 연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은 현장의 생생한 정보나 관련 지식들을 습득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분야는 농촌생활, 농지주택 정보 제공, 작목선택, 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 다양하며 귀농닥터 농장이나 신청인 농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인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농촌 거주 1년 미만 귀농·귀촌 인이면 올해 11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